

Outline Studies On Hebrews Chapter Eleven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지음

김영균 옮김



KJ 도서 출판 **킹제임스**
King James Bible Publications

Outline Studies On Hebrews Chapter Eleven

By James W. Knox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2011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지 은 이 | James W. Knox

옮 기 이 | 김영균

펴 낸 이 | 김영균

재판발행 | 2018. 04. 12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 6. 18. 제17-292호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b.com

표지그림 | 이장웅 jy13b@naver.com

편집디자인 | 장한디엔피

ISBN | 978-89-89741-24-4

정가 1,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차 례

서문	06
제1과 기초농기 (1,2,6절)	10
제2과 창조(3절)	12
제3과 두 종류의 희생(4절, 창4:3-10)	14
제4과 휴거(옮겨짐)(5절)	16
제5과 두려움으로 이주함(7절)	19
제6과 여행하는 사람(10절)	20
제7과 죽음으로부터 얻은 생명(11-12)	22
제8과 이삭을 바침(17-19절)	24
제9과 물속의 아기(23절)	26
제10과 모세의 희생(24-29절)	28
제11과 유월절(28절, 출12장)	30
제12과 무너진 성벽(30절)	33
제13과 창녀 라합(31절)	35
제14과 복을 선언함(20-22절, 창27, 28, 48, 50장)	37
제15과 두려움으로부터 믿음으로 (32절, 삿4-8장)	39
제16과 실패로부터 믿음으로(32절, 삿11,13-16장)	41
제17,18과 사자의 입을 막다(33절, 단6장)	43
제19과 바벨론의 불속에서(34절 단3장)	45
제20과 어머니의 기적(35절, 왕상17장)	48
제21과 죽기까지 신실함(35-37절)	50
제22과 약속(9,13,39절)	53
제23과 다양한 믿음	55
제24과 죄들은 어디 있는가?	57
제25과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6절)	59
제26과 믿음의 창시자 그리스도(12장:1-2)	61

헌 사

저는 갓 구원받았을 당시 그리스도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한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를 지식이 충만한 두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인도해 주셨고, 저는 그들 덕분에 성경을 배울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초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초기 시절 덕분이었습니다. 낮에 일을 하는 도중에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 언제나 그 형제들은 성경의 장과 절을 들어가면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녁에 우리는 거실에 앉아 성경의 계시와 일치하지 않는 글을 쓴 사람들의 책을 공부함으로써 그들의 가르침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돕는 사역, 거리 설교, 라디오 사역을 시작했고, 마침내 수많은 귀중한 혼들이 구원받는 통로가 된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두 명의 형제들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저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자신들은 비밀 모임을 가졌는데 저를 우리가 함께 일군 사역으로부터 내쫓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교제로 인해 성경 지식이 필요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반으로 인해 성령의 열매가 필요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은 그들과의 일들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말씀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들이 저에게 보여준 증오와 잔인함이 없었다면 저는 사랑과 은혜가 필요함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알프레드 스티븐(Alfred Stephen)과 제이 하디(Jay Hardy)에게 바칩니다.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 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 두게 하셨나니”(창50:20)

이 책을 교과서로 해서 **“히브리서 11장”**이라는 제목으로 한 강의를
www.ilovekjv.com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서문

히브리서 11장 만큼 공부할 내용이 풍성한 성경 말씀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영웅들” 혹은 “구름 같은 증인들”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 하나님께서 선정한 성도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후배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우선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며, 그 다음 하나님의 창조, 인류 역사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 장을 통해 인류 역사의 모든 시기에 있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주를 짓고, 어떤 사람은 고향을 떠났으며, 어떤 사람은 두려운 적과 싸우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풀무불에 용감하게 들어가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경우에 있어 공통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 장을 통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본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읽어보면, 모든 이들의 믿음은 행위로 표현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라는 표현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다음에 바쳤다. 이주했다, 숨졌다, 거부했다, 불을 켜다, 등등의 동사들이 꼭 열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faith)은 단지 믿는 것(believing)이상인 셈입니다. 즉 행동을 유발하도록 “믿는 것”(believing)이 믿음(faith)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제시된 진리의 산물(결과)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2-16장도 로마서 1-11장에서 발견되는 진리들이 어떻게 역사(outworking)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원칙은 성경 곳곳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오경 중 출애굽기는 구속을 제시하고, 레위기는 성결을 제시하여 이 구속과 성결의 결과 혹은 산물이 민수기에 뒤따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는 사도행전에 앞서 그 기초에 해당하는 사복음서가 먼저 제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패턴(pattern)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위대한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얻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약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세 번 나옵니다. 처음으로 이 말씀이 등장하는 로마서는 “의인(The just)”을 강조하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갈라디아서는 “살리라(shall live)”를 강조하는 반면, 세 번째로 이 표현이 등장하는 히브리서(10:39)에서 “믿음으로(by faith)”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은 창조주에 대한 의존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실에 입각해서 행동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죄와 배교(apostasy)가 시작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로부터 떠나가면, 곧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인간(人間) 사이의 관계가 합당하게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 계시가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간(人間)이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해 믿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살전2:13).

본 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보이는 표적이나 이적의 형태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영웅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였고(7절)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으며(27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13절).

히브리서 11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예(2-12절)

일반적인 설명(13-16절)

개별적인 예(17-38절)

일반적인 설명(39-40절)

두 번에 걸친 일반적인 설명이 “이 사람들은 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은 달랐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이 사실만은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본 장에 등장하는 모든 남녀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정하신 성경 속의 “유명”인사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Rothschild) 가문의 엄청난 부는 매우 간단하게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군이 워털루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그 어떤 영국 사람보다 하루 먼저 알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안 그는 값이 떨어진 주식을 몽땅 사들였고, 그 주식은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 소식을 “계시”받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그 소식(계시)을 알게 되었으나 믿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 좋은 소식을 믿기는 했으나, 그 사실에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소식 즉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영원히 부유하게 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지식(즉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 행동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택하신 분들은,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는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1과 기초 놓기 (1, 2, 6절))

제1과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이 내리고 있는 정의(definition)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중요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I. 믿음이란 무엇인가?

A. 실체(Substance)

- (1)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롬10:17).
- (2)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창시자이시다(히12:2).
- (3)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요1:1, 14).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육신이 되신 말씀을 계시해 주는 기록된 말씀이다.

B. 증거

- (1) 우리는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다(벧전1:8).
- (2)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임재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요3:8).
- (3)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고후4:18).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증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우리는 나무들이 흔들리고 산들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낄 수 있기에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따라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행사할 때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게 된다.

C. 실례(Example)

- (1) 나는 하늘로 갈 것을 소망한다.

- a. 어떤 전제에 근거해 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가?
- b. 이 소망에 실체(Substance)가 있는가? (이 소망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 c. 그렇다. 이 소망은 기록된 말씀에 제시되어 있다.

(2) 한번 따져보자.

- a. 내 소망의 실체(Substance)를 지지해 줄 증거가 있는가?
- b. 그렇다. 히브리서 11:2과 12:1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기록이 나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한다.

II 개인적으로 가져야 할 믿음

- A. 인간(人間)은 하나님(창시자)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6절).
- B. 인간(人間)은 믿음의 결말(완성자)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6절).
- C. 각자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주어졌다(롬12: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인간(人間) 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놓아두셨으며,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 주셨다(롬18-21).

III.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 A. 구원은 믿음에 의해 온다(엡2:8-9).
- B.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롬1:17, 갈3:11).
- C.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한다(요일5:4).

D.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히11:6).

E. 믿음이 아닌 것은 죄이다(롬14:23).

F. 믿음은 영적 전쟁에 필요하다(엡6:16).

IV. 위험

A.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잠20:6).

B. 특히 마지막 날들에는 더욱 그러하다(눅18:8).

(제2과 창조 (3절))

거짓되이 과학이라 불리는 것(딤후6:20)과 현대주의(modernism), 그리고 기타 여러 이단적인 단체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진리에서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진리의 말씀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그들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식에 이르도록 해 주는 “열쇠”도 안 가진 채 자연 세계를 본성에 속한 사람으로서(고전3:14) 추론을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이론들을 만들어 내고, 그들의 육신적 생각에 옳게 보이는 “진리들”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 창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대체하려는 인간들의 시도야말로 가장 노골적인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해답을 얻으려 시도하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

입니다. 그 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영적으로 어린아이일지라도 참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우주의 기원과 운영에 대해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I. 우리는 믿음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A.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

- (1) 창조는 말씀에 의해 행해졌음(요1:1-3)
- (2) 창조의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됨(골1:16-17)
- (3) 만물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됨(계4:11)
- (4) 창조의 역사적 기록(창1:1-27, 2:1-7)

B. 인간의 불신

- (1) 다윈의 진화론(롬1:20-23)
- (2) 유신론적 진화론(겔8:12, 9:9)
- (3) 빅뱅 이론(벧후3:10-11)
- (4) 다른 추측들(고전1:19, 21-25)

II. 믿음의 깨달음은 어떻게 오는가?

A. 눈에 보이는 증거(시19:1-4)

B. 보이지 않는 증거(롬1:18-20)

III. 인간 창조의 세 측면

A.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창조하심(사45:12, 시51:5, 시139:13)

B. 구원시의 재창조(고후5:17)

C. 그 후의 계속적인 재창조(시51:10, 고후4:16)

* 주의: 찰스 다윈은 “자연적 선택에 의한 종들의 기원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기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어떤 종도 자신이 제시한 방법대로 기원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 주의: 탈무드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나요?”라는 질문이 있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 사역에 자기도 참여했었노라고 우기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3과 두 가지 희생물 (4절, 창4:3-10))

이번 과에서 우리는 아벨의 믿음을 보여준 것은 그의 개인적 성품이나 생활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그가 하나님께 바친 희생(물)이란 사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을 구분 짓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가 드린 희생(물)에 의해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4절).

I. 유사점과 차이점

- A. 두 사람 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 B. 두 사람 다 자발적으로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 C. 두 사람 다 희생적 자세로 가져왔습니다.

- D. 한 사람은 저주받은 땅의 열매를 가져왔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을 가져왔습니다.

II. 하나님의 반응

- A.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으셨으나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사람들의 행위는 존중하시거나 거절하십니다(잠16:2).
- B.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의(義)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 C. 반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불의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III. 결과

- A. 가인은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 B.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자를 박해하고 살해하였습니다.
- C. 아벨은 자신의 피로 의로운 증거를 인쳤습니다.
- D. 아벨은 영원한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에 대한 증거

(2) 의인의 고난에 대한 증거. 많은 종교인들이 그리스도 없이 가인의 길로 영원히 가 버렸습니다(유11).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희생물은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그것뿐입니다. 열심, 진지함과 개인적 의견은 주님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양의 피뿐입니다.

IV. 예표의 성취

- A.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1:29)
- B. 우리 죄들로 인해 드러졌음(히9:14)
- C. 우리로 구속받게 하려 함(벧전1:18)

V. 구속받은 자들의 희생물

- A. 산 희생물로 드려지는 몸(롬12:1)
- B.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영(벧전2:5)
- C. 감사(시116:17)

* 주의: 아담 이래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경배할 수 없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단에서만 그분을 만나야 했습니다.

(제4과 **옮겨짐** (5절))

어느 작가는 에녹의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말씀하셨다. ‘에녹, 지금은 네 집보다 내 집에 더 가까이 왔구나. 자, 함께 내 집으로 들어가자꾸나.’”

“옮김”(translation)이란 “죽음 없이 하늘로 데려감”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I. 에녹의 생애

A.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히11:5).

B.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창5:22).

(1) 하나님과 에녹 둘은 합의하에 있었습니다(암3:3).

(2) 에녹은 가정 생활의 부담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창 5:22).

(3) 에녹은 지속적으로 300년 동안이나 그리하였습니다(창5:23).

C. 에녹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유14-15).

(1) 주님의 재림

(2) 구원(성도들)

(3) 심판

(4) 죄를 미워하심

D.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셨습니다.

(1) 에녹은 죽지 않은 채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2) 에녹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a. 죽음 전에 하늘로 옮겨졌음(요11:25-25, 살전4:17).

b. 환난 전에 미리 옮겨짐(창6장, 살전5:9).

c. 그의 기적적인 떠남은 이 세상의 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음.

E. 교회의 옮겨짐

- (1) 사실(살전4:13-5:11)
- (2) 이유(고전 15:51-57)
- (3) 기다림(벧후3:7-9)
- (4) 시기(눅21:25-28)
- (5) 증거(요11:1-46)
- (6) 부르심(롬13:11)

* 주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두 영웅은 주의 만찬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제공해 줍니다(고전11:26).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아벨의 희생)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 주의: 이 두 영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예시해 줍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살해당했으나 반면 에녹은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 주의: 성경 퀴즈 때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은 누구입니까?”입니다. 정답을 므두셀라(창5:27)입니다. 그러나 그의 수명 969년은 에녹이 50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튼튼하게 살아 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5과 두려움으로 움직임 (7절))

7절은 실로 매우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by faith) 시작하여 믿음으로(by faith) 끝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I.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음

- A. 심판 전에 항상 경고가 주어집니다(마3:7).
- B.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중 하나가 곧 경고입니다(시9:11).
- C. 우리는 교훈을 얻기 전에 경고에 주의해야 합니다(골1:28).

II.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 A.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입니다(히11:1).
- B. 경고가 주어지기 전에는 비도, 홍수도, 멸망도, 동물을 모으는 일도 없었습니다.

III. 두려움으로 움직임

- A.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잠1:7, 8:13, 9:10, 14:16, 14:26, 15:33, 19:23).
- B. 우리가 그와 같은 두려움으로 움직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 (1) 방주를 예비함
 - (2) 자기 집안을 준비시킴

(3) 세상을 준비시킴(벧후2:5)

IV. 오늘날 노아의 증언

A.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 대해(창6:8)

B.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관해(창6:22, 7:5)

C. 안전한 방주로 들어갔음(창7:9,15)

D. 하나님에 의해 인(印)쳐졌음(창7:16)

E. 의를 상속받았음(히11:7)

(1) 신약의 진리(롬4:6, 5:18, 10:3, 갈2:21, 엡4:24, 딤후3:5)

(2)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임(롬8:17)

(제6과 나그네 (10절))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자신의 영광을 직접 나타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자였다는 분명한 언급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적어도 과거에 그랬을 것이라는 암시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수24:2). 확실히 가족 전체가 우상 숭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이 그의 신앙 여정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는 자기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땅이 단 한 뼘도 없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유일한 몫은 무덤뿐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으며 그의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아야 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이 믿음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I.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A. 부르심(8a절, 느9:7, 행7:2-4, 창12:1)

- (1)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라.
- (2) 알지 못하는 목적지로 떠나라.

B. 아브라함의 순종(8c절, 창12:4)

- (1)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음.
- (2) 아무것도 묻지 않았음.

C. 보상(8b절, 창12:7)

- (1) 그는 믿음으로 걸었음.
- (2) 후에 그 약속들이 실현되었음

II.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

A. 동일한 부르심

- (1) 옛 생활을 버리자(고후6:17)
- (2)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막16:15)

B. 동일한 순례

- (1)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음(벧전2:21)

(2) 타국인으로 살아감(벧전2:11)

C. 동일한 전망

(1) 보이지 않는 약속들을 바라봄(딤후2:13)

(2) 우리를 위해 예비된 장소가 있음(요14:1-3, 히11:14-16)

* 주의: 오늘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말이 심히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집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이 아니고 특정한 목적지(혹은 목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구속받은 자들을 위해 예비된 하늘의 처소를 향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위해 사용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7과 **사망에서 생명을 가져오심** (11-12절))

히브리서 11장에는 창세기의 인물 중 일곱 명이 등장하는데 이 일곱 인물은 성경 기록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4명과 3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그룹 가운데에 사라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처음에는 의심을 가졌으나 끝이어서 믿음을 갖게 된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라는 그중 첫째 사람입니다. 사라의 경우를 통해, 비록 처음에는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믿음에 있어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고자 하는 자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자신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I. 불가능한 상황

A. 사라

- (1) 나이가 지났음
- (2) 수태할 수 없었음

B. 아브라함

- (1) 연로하였음(창18:11)
- (2) 죽은 자와 다름없었음

II.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 A.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창18:14)
- B. 시계를 거꾸로 가게 하심(창18:14)
- C.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가져오심(창21:1-3)

III. 믿음은 나약함을 극복함

A. 사라의 연약함

- (1) 그녀는 웃었다(창18:12)
- (2)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창18:15)
- (3) 그녀는 두려워했다(창18:15)

B. 아브라함의 연약함

- (1) 자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창16:1-3)
- (2) 약속의 성취를 위한 대안을 추구했다(창16:4)

C. 행복한 결말

- (1)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에 관해서만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

니라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2) 사라는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었다(벧전3:6)

IV. 적용

- A. 인간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힘도 없고 소망도 없다.
- B. 혈과 육에 연관된 그 어떤 것도 인간을 도울 수 없다.
- C. 하나님만이 자신의 권능으로 기적적인 출생을 가져오실 수 있다.

* 주의: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었을 때 소망을 가졌습니다(롬4:18). 이는 믿을 수 없었을 때 믿고자 한 사람과 같습니다(막9:24).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고하고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야 합니다.

(제8과 이삭을 바침 (17-19절))

하나님께서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성경 여러 구절에서 우상 숭배와 세속적 쾌락의 추구는 부관계에 있어서의 신실치 못함(간음)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입증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자주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없으나 만약 그것이 우

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인간 관계, 재산, 미래의 계획 등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미움이 가득한 하나님의 잔인한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구원자와의 사랑의 관계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됩니다.

I.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

- A. 아브라함의 아들(17절)
- B. 직접 죽일 것(창22:2)
- C. 약속의 소망을 바칠 것(18절)

II.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수용한 것

- A. 순종(경배 행위, 창22:5)
- B. 하나님께서는 약속들을 지키실 것임(창17:21)
- C. 하나님께서는 대속물을 제공하실 것임(창22:8)
- D. 혹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것임(창22:5)

III. 모형

- A. 독생자(17절, 창22:2)
- B. 나무를 지고 언덕을 올라감(창22:6)
- C. 어린 양으로서 바쳐짐(창22:8)
- E.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짐(19절)

* 주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8-10절)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될지 모를 때에(11-12절)

언제 약속이 성취될지 모를 때에(13-16절)

왜 이삭을 바쳐야 하는지 모를 때에(17-19절)

* 주의: 아브라함은 과거에 자신의 죽은 몸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이삭을 받았음을 인식하고 있었기에(롬4:19, 히11:11-12), 이삭을 바칠 때에도 죽은 자들로부터 이삭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다루시던 경험으로부터 오늘날의 시련을 이길 힘을 얻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9과 물에서 건져진 아기 (23절))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겪는 가장 커다란 시련은 사회 권력층으로부터의 위협과 가족간의 애정으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요게벳 부부의 경우에는(민26:59) 이 두 가지 시련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I. 위험한 시기

A. 히브리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 의해 노예가 되었음(출 1:14)

B. 정부 당국은 모든 남자 아이를 살해하라고 명령하였음(출1:6, 22)

II. 신실한 자들의 반응

A. 산파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음(출 1:17)

B. 아브람과 요게벳은 고상한 방식으로 행동했음

(1) 자신들의 아이를 숨겼음(출2:2)

(2) 궤를 만들었음(출2:3)

(3) 주의 깊게 지켜보았음(출2:4)

(4) 아이를 돌보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했음(출2:7-9)

III. 아기 시절에 극적인 구출을 경험한 성경의 인물들

A. 모세

B. 요아스(대하 22장)

C. 예수님(마 2장)

IV. 시민 불복종

A. 당대 권력에게 복종할 것(롬13:1-8)

B. 왕을 존경할 것(벧전2:17)

C.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을 요구할 때.

(1) 가능하다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것(마10:23)

(2) 가능하다면 권세에 저항할 것(행5:29, 단3장)

(3) 필요하다면 죽을 것(계17:6)

V. 부모를 위한 지침들

A. 안전

- (1)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아이들을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숨기도록 노력할 것.
- (2) 아이들을 세상으로 내보낼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것: 학교, 직장, 그리고 결혼

B. 준비

- (1) 우리도 방주를 지어 물의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합시다.
- (2) 우리도 물가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위험한 때가 올 때 그들을 도와줄 준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 주의: 사람들은 아기 모세를 늘 행복하고 방긋 웃는 모습으로 묘사하지만 성경은 아기가 울었다고 말씀하며 이 울음이 파라오의 딸의 동정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씀합니다(출2:6).

(제10과 모세의 희생 (24-29절))

모세는 두 번에 걸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한 번은 그가 왕국에 아직 머물러 있었던 때로, 그는 당시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함으로써 정신적으로와 영적으로 이집트와 결별하였습니다. 또 한 번은

그가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냈을 때로,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I. 모세가 포기한 것

- A. 왕위 계승권(24절)
- B. 평안한 생활(25절)
- C. 엄청난 부(26절)
- D. 찬란한 과거와 찬란한 미래(27절)

II. 이로 인해 지불한 대가

- A. 고난(25절)
- B. 치욕(26절)
- C. 진노(27절)

III. 그가 얻은 것

- A.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26절)
- B. 영원한 보상(26절)
- C. 피에 의한 구속(28절)
- D. 원수들로부터의 구출(29절)

IV. 그의 고상한 성품

- A.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음(24절)
- B.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음(26절)

C.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둬(26절)

D. 이집트를 버림(27절)

E. 건디어 냄(27절)

V. 새로운 삶의 예표

A. 변화된 관계

(1) ‘그’에서 ‘그들’로 바뀜(28절)

(2) 이집트의 모든 흔적이 사라짐

(3)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그들”(29절)

B. 그 밖의 예

(1) 사울(행 9:17)

(2) 여러분들 중 몇몇 사람(고전6:9-11)

* 주의: 모세의 부모가 사람의 두려움을 극복한 반면 모세는 사람의 칭찬을 극복하였습니다.

(제11과 유월절 (28절, 출12장))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관한 ‘스릴 넘치는 그림’ 중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양의 피에 의한 이스라엘의 구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고전5:7)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네(You, 사람)가 느낄 때”가 아니라 “내(I, 하나님)가

불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출12:13). 따라서 구원이란 신체적 감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에 의해 주어집니다.

I. 헌물

- A. 어린양(출12:3)
- B. 흠이 없음(출12:5)
- C. 이스라엘 회중에 의해 죽음 당함(출12:6)
- D. 제 14일에(출12:6)
- H. 그 피가 흘려짐(출12:7)
- F. 그 어떤 물도 허용 안 됨(출12:9)
- G. 불에 구워짐(출12:8)
- H.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됨(출12:10)

II. 개인마다.

- A. 어린양을 취해야 함(출12:3)
- B. 피가 적용되어야 함(출12:7)
- C. 그 양을 먹어야 함(출12:8) : 집 밖에 뿌려진 피는 구원을 위한 것이고 집 안에서 구워진 어린양은 만족(배부름)을 위한 것임

III. 피해야 할 실수

- A. 어린 양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함.
- B. 어린 양을 취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불충분함.
- C. 그 누군가(타인)의 어린 양은 소용없음.

D. 피를 적용하는 것을 미루는 일.

IV. 결과

A. 뿌려진 피를 신뢰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음(출12:12-13)

B. 피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멸망 당함(출12:12-13)

C. 어린양을 지닌 자들은 그것을 친족에게 나누어 줌(출12:3)

D. 어린 양을 지닌 자들은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줌(출12:4)

E. 구속 받은 자들은 옛 생활을 떠남(출12:11,37)

F. 그들의 원수들은 노략을 당했음(출12:35-36)

* 주의: 이 모든 것들을 유의해 본다면 그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겠습니까? 다음 구절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놀라운 예표들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1) 어린양(요1:29)

(2) 흠이 없으심(요12:38)

(3) 이스라엘의 회중에 의해 죽음 당하심(마27:25)

(4) 제 14일(마26:17-19)

(5) 흘려진 피(막14:24, 요19:34)

(6) 물은 없음(요19:28-29)

(7) 불로 구워짐(행2:27)

(8) 저녁까지 머물지 않으심(요19:31)

(제12과 무너져 내린 성벽 (30절))

이제껏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해 오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이삭, 아벨 그리고 유월절 등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요, 둘째는 에녹과 모세 등을 통해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분리되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영적 전쟁을 예표하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만나는 전투는 하나님의 원수들과의 전투로 사사기, 열왕기 등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는 다름 아닌 여리고 성벽 둘레를 행진하는 그 유명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I. 놓여진 상황

- A. 뒤에는 노예생활이라는 과거가 놓여 있음
- B. 앞에는 자유의 쟁취가 놓여 있음
- C. 이 둘 사이에는 전투가 놓여 있음

II. 현황 분석

- A. 원수들의 위협
- B. 준비가 안 되어 있음
- C.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

III. 진행 과정

- A. 약속을 믿음(수6:2)
- B. 말씀을 앞세움(수6:6)
- C. 특이한 명령에 순종함(수6:8-15)
- D. 기쁨으로 환성을 지름(수6:16)
- E. 축복을 선언함(수6:20-21, 24)

IV. 오늘을 위한 적용

- A. 어린 양의 피에 의해 과거의 속박에서 구속됨
- B.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안식의 삶이 가능해짐
- C.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 측에서도 붙들어야만 한다.
- D. 위의 과정을 잘 따르면 풍성한 삶이 보장된다.

* 주의: 일반적으로 주석들이나 그림들이나 성경 이야기 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여리고 성벽을 돌면서 행진한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이들 백성의 정체는(수6:7-8) 제사장들과 무장한 자(6:8-9)였습니다. 이들은 군사(men of war, 수6:3)라고 불렸는데, 이 용어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단지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할 때 뿐만 아니라 일반 군인과 특수부대를 구분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전사, 출15:3, 삼상16:18 17:33 삼하17:8 대상12:1, 33-38).

(제13과 창녀 라합 (31절))

우리는 오늘 한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율법도 모르고 언약과도 상관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도 붙들 자격이 없는 여인으로 더러운 과거를 지닌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먼 곳으로부터 들려온 복된 소식을 듣고 이를 믿었으며, 믿음으로 행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분의 선민과 함께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I. 들음으로 얻게 되는 믿음

- A. 민족들에 관한 예언을 들음(출15:15-16)
- B. 이집트로부터의 구출(수2:10)
- C. 홍해가 말라버림(수2:10)
- D. 왕들을 정복함(수2:10)

II. 믿음의 반응

- A. 마음이 녹아내림(수2:11)
- B. 용기가 남아 있지 않음(수2:11)
- C.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수2:11)

III. 믿음으로 행함

- A. 정탐군을 숨겨줌
- B. 그들의 도주를 도와줌

- C. 가족을 얻음
- D. 주홍색 줄을 내걸음

IV. 오늘을 위한 영적 교훈

- A. 좋은 소식을 믿음
- B. 다른 신들을 내버림
- C. 피를 신뢰함
- D. 멸망 전에 빠져나옴(수6:22-23)
- E. 과거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 주의: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정복이 연대기적 순서에서 벗어나 기록된 것은 홍해를 건넌 믿음의 행위와 짝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믿음의 행위도 여리고 성벽 함락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목적으로 연대기적 순서와 어긋나게 기록된 사라의 믿음과 짝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믿음과 동일한 방식, 즉 순종으로 표현된 반면, 사라의 믿음은 라합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 즉 그들이 들은 소식에 대해 올바른 결론을 내린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제14과 복의 선포 (20-22절, 창27, 28, 48, 50장))

이번 과는 우리의 믿음이 후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꾸준한 신뢰로 가득 차서 우리 뒤에 남게 될 후손들에게 그분의 축복의 약속들에 대한 확신을 물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공통점

- A.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의 성취를 살아 생전에는 볼 수 없었으나 그 약속들을 믿었습니다.
- B.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승리로 장식함
 - (1) 이삭은 축복하였습니다.
 - (2) 야곱은 경배하였습니다.
 - (3) 요셉은 노예 생활로부터의 구출을 예견했습니다.

II.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함

- A. 야곱에 대한 첫째 축복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
 - (1) 이삭은 자신의 느낌을 신뢰함(창27:21)
 - (2) 의심은 품은 채 먹음(창27:22, 24, 롬14:23)
- B. 에서는 믿음으로 축복 받음
 - (1) 이삭은 자기가 내린 축복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믿음
 - (2) 에돔 족속의 미래를 선포함(27:38-40)
- C. 믿음으로 축복받은 야곱(창28:1-5)
 - (1) 많은 상속자들
 - (2) 약속의 땅

III. 임종 시의 야곱

- A.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달콤한 추억
 - (1) 그의 지팡이를 의지했음(11:21)
 - (2) 자신의 인생 여정을 시작할 때 오직 이 지팡이밖에 없었음(창32:10)
- B.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함(창11:21)
- C. 특수한 환경
 - (1) 시력 저하
 - (2) 상식과는 반대로 축복함(창48:10)
 - (3) 가족의 요구와 반대로 축복함(창48:16)
- D. 아브라함에 주어졌던 약속들을 믿음(창48:16)

IV. 임종 시의 요셉

- A.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실 것임(창50:24)
- B.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속박에서 이끌어 내실 것임(창50:24)
- C.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창50:24)
- D. 뼈들을 가지고 갈 것을 명령함(창50:25)

V. 우리에게 본이 됨

- A. 과거의 실패를 잊어야 함
- B. 상식이 아닌 영적으로 사물을 바로 보아야 함
- C. 죽음 너머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함
- D.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내실 때(휴거) 우리의 뼈는 단 하나도 이 세상에 남지 않을 것임.

〔 제15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믿음으로 나아감 (32절, 샛4-8장) 〕

어떤 사람들의 생애는 시작도 잘못되었고 끝도 좋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위나 사랑의 수고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다음 두 과에서 우리는 생애가 다소 실망스러운 네 사람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그 순간들로 인해 그들은 믿음의 영웅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I. 두 명의 “주저하는” 신자

A. 기드온은 승리에 대해 확신이 없었음

- (1) 나약함을 호소함(샛6:15)
- (2) 주님을 궁지에 몰아넣음(6:36-40)
- (3) 몰래 침투함(샛7:9-14)

B.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바락

- (1) 주님의 명령에 응하지 않음(샛4:6-7)
- (2)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려 하지 않음(샛4:8)

II. 육신을 제쳐놓고

A. 기드온

- (1) 경배함(샛6:24)
- (2) 우상을 파괴함(샛6:25-28)
- (3) 미디안을 패퇴시킴(샛7:19-23)

B. 바락

- (1) 게으름을 떨치고 일어남(삿4:9)
- (2) 전쟁터로 내려감(삿4:14)
- (3) 원수를 패퇴시킴(삿4:16)

III. 실망스러운 종말

A. 기드온이 어리석음에 굴복함

- (1) 탐심(삿8:24-26)
- (2) 아비들의 반복되는 실수(삿8:27)

B. 바락이 사라져 감

- (1) 야엘이 영광을 얻음(삿5:6, 24-27)
- (2) 바락은 어둠 속으로 사라짐

IV. 중요한 교훈들

A.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사용하심

B. 좋은 날이 좋은 인생을 거저 가져다 주지 못함

C.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짧은 봉사일지라도 받아 주심

(제16과 실패로부터의 믿음 (32절, 샛11장, 13-16장))

할리우드가 사사기를 붙잡지 않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는 우리를 흥분시키는 싸움들, 음모 및 갈등뿐 아니라 거둬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위대한 “영웅”들의 죄악과 실패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신성한 영감의 말씀이라는 가장 위대한 증거들 가운데 하나는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들의 추악한 모습을 슬쩍 지워 버리는 일이 없음) 이 세상에 초인(superman)은 없습니다. 오직 타락한 인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선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선택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주관해 주시도록 맡긴 몇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기간(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는 기간)이 단기간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어떻게 삼손과 다윗이 나란히 놓일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바락과 입다가 사무엘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로 엄청난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I. 영웅 같지 않은 두 영웅

A. 입다의 문제투성이 과거

- (1) 창녀의 아들(샛11:1)
- (2) 사회적으로 버림받음(샛11:2)
- (3) 친족들로부터 미움 받음(샛11:7)

B. 삼손의 불안정한 성격

- (1) 성령께서 통제하던 시절(삿13:25)
- (2) 성령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던 시절
- a. 성질(삿14:19, 15:3-5, 8)
- b. 여성 편력(삿14:2-3, 15-17, 16-24)

II. 때로는 영적으로 상승하기도 함

A. 입다의 고귀한 정복 전쟁

- (1) 장로들의 말을 힘입어 행동에 옮김(삿11:9-11)
- (2) 아모리 왕에게 경고를 보냄(삿11:12-25)
- (3) 전투 참여와 승리(삿12:1-4)

B. 삼손의 마지막 모습

- (1)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머리털이 회복됨(삿16:22)
- (2)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함(삿16:26)
- (3) 주님을 찾음(삿16:28)
- (4)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하셨음을 믿음(삿16:29)
- (5) 집을 무너뜨림(삿16:29)

III. 밀과 독보리

A. 인간의 주안점

- (1) 실패의 순간들
- (2) 나약함의 길

B. 하나님의 주안점

- (1) 믿음의 순간들
- (2) 하나님의 능하게 하심으로 인해 받게 될 복

(제17,18과 사자의 입을 막음 (33절, 단6장))

다음에 주어진 성경 공부 개요는 두 과를 공부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첫째는(제17과) 다니엘서 6장을 통해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원수들로부터 구출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셨는가를 공부할 것입니다.

둘째는(제18과) 다니엘서 6장의 구절들과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비교하면서 다니엘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및 사역과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I. 다니엘의 지위

- A. 메데, 페르시아의 제1총리(단6:2, 행3:15)

II. 다니엘의 성품

- A. 뛰어난 영(단6:3, 마3:16)
- B. 허물이 없음(단6:4, 눅23:4)
- C. 신실함(단6:4, 계1:5)

III. 다니엘의 원수들

- A. 원수들이 기회를 엿봄(단6:4, 막14:1)
- B. 원수들이 그의 믿음을 알게 됨(단6:5, 요18:20)
- C. 원수들이 그의 멸망을 모의함(단6:6-9, 요11:53)

IV. 다니엘의 행동

- A. 이전과 똑같이 기도했음(단6:10, 마26:36, 눅22:39-41)

- B.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음(단6:10, 눅13:31-33)
- C. 자신의 구출을 스스로 구하지 않음(단6:14, 마26:53)

V. 다니엘을 재판한 자

- A. 형을 집행하라는 압박을 받았음(단6:12-13, 요1:12)
- B. 희생자의 무죄를 인정했음(단6:14, 마27:24)
- C. 자신을 의로운 자 위에 놓음(단6:15-16, 요19:12-13)
- D. 다니엘이 다시 나타날 것을 은근히 믿었음(단6:18, 마27:65)

VI. 다니엘이 받은 처벌

- A. 사자굴에 던져짐(단6:16, 뱀전5:8, 시16:10)
- B. 문 위에 돌이 놓임(단6:17, 마27:60)
- C. 왕의 칙령에 의해 무덤 안에 봉인됨(단6:17, 마27:66)

VII. 다니엘이 받은 보상

- A. 천사의 방문(단6:22, 마28:2)
- B. 사자들이 굴복함(단6:22, 히2:14)
- C. 다시 등장함(단6:23, 행4:10)
- D. 해를 입지 않음(단6:24, 행13:37)
- E. 적들이 멸망함(단6:24, 골1:5)
- F. 번영(단6:28, 빌2:9)

VIII. 다니엘이 거둔 열매

- A.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단6:27, 시70:4)
- B.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크게 높임 받음(단6:26, 행8:4)

〔 제19과 바빌론에서의 어려운 시절 (34절, 단3장) 〕

성경 전체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들 중 하나는 매우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청년 세 사람에게 대한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원수로부터 구출하신 것도 아니고 진리를 위한 그들의 올바른 입장 표명이 가져온 결과로부터 구출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시련은 일반적인 형태의 시련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시험 받은 그 일에 직접 참여하시어 그들과 화염 속을 함께 통과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 세 청년을 바빌론식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이교도 왕이 그들에게 준 이름이며 이방의 거짓 신들과 관련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그들의 히브리식 이름을 사수하고자 합니다. 이 이름이야말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I.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했음

A. 모두가 형상 앞에 모였음(단3:2-3)

B. 모두가 짐승을 경배했음(단3:7)

II. 고자질

A. 갈대아인들의 보고(단3:8)

B. 위장된 경건

(1) 만수무강하소서(단3:9)

(2) 당신의 칙령이니이다(단3:10-11).

(3) 당신을 존중치 않나이다(단3:12).

III. 왕이 몹시 화를 냄

A. 격노와 분노(단3:13)

(1) 심문을 함(단3:14)

(2) 하나님을 모독함(단3:15)

B. 분노가 가득함(단3:19)

(1) 얼굴이 일그러짐(단3:19)

(2) 달구어진 용광로(단3:19)

(3) 사형 선고(단3:20)

IV. 믿음의 반응

A. 염려하지 않음(단3:16)

B. 하나님은 능히 구출하실 수 있음(단3:17)

C.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개를 숙이느니 차라리 죽을 것임(단3:18)

V. 체포

A. 결박됨(단3:16)

B. 가장 강한 자들에게 붙들림(단3:20)

C. 용광로에 던져짐(단3:23)

VI. 놀라운 “교제”(단3:25)

A. 결박이 풀림

B. 걸어 다님

- C. 해를 입지 않음
- D. 예수님께서 임재하심

VII. 행복한 결말

- A. 군인들이 소멸됨(단3:22)
- B. 왕이 놀람(단3:24)
- C.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단3:28)

VIII. 우리를 위한 교훈

- A. 타협을 안 함
- B. 차분히 대가를 지불함
- C.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
- D. 산 희생물로 바침(단3:28, 롬12:1)

* 주의: 잘못된 성서에는 다니엘 3:25에서 “하나님의 아들”대신 “신들의 아들” 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거나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경 변개는 성경과 하나님의 영광 혹은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구 상의 그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계1:17). 비록 전에 한 번도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20과 어머니의 기적 (35절, 왕상17장))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5절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 받은 여인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성경에는 이에 해당하는 여인들이 몇 사람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경우들 외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경우는 엘리야의 사역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I. 어려움이 계속되는 시기

- A.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음(왕상17:1)
- B. 시내가 말라 버림(왕상17:7)
- C. 죽음을 앞에 둔 과부 (왕상17:12)
- D. 아들이 병들어 죽음(왕상17:17)

II. 하나님께서는 돌보시지 않는가?

- A.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냇가로 보내었고 그 결과 시내는 말라버림(왕상 17:3,7)
- B. 하나님께서 선한 여인에게 질병과 굶주림을 보내심
 - (1) 이 여인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셨음(왕상17:12)
 - (2) 이 여인은 말씀에 순종하였음(왕상17:15)
 - (3)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였음(왕상17:15)
- C. 하나님께서는 악도 주관하신다.
 - (1) 창조자로서(사45:7)

(2) 심판자로서

- a. 민족들을 심판함(미1:12, 암3:6, 시78:49)
- b. 죄인들을 심판함(삼상16:14-16, 삼하17:14)

III. 어린아이를 일으킴

- A. 숨이 남아있지 않았음(왕상17:7, 창2:7, 왕상17:21)
- B. 품에서 아이를 취하여 냄(왕상17:19) - “정서적 분리”를 의미하는 단순한 표현이 놀랍지 않은가?
- C. 데리고 올라감(왕상17:19). - 전도서 3:21과 연결하는 것은 비약일지?
- D. 열렬한 기도(왕상17:20-21)
- E. 회복된 생명(왕상17:22, 왕하13:21, 롬14:9)
- F. 여인이 그녀의 죽은 자를 살려 받게 됨(왕상17:23)

IV. 믿음으로 치유함

- A. 사람들에게 내보이거나 자랑하는 일은 없음
- B. 여인에게나 아이에게나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음
- C.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은밀히 “씨름함”
- D.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감(왕상17:24)

V. 오늘날을 위한 교훈

- A. 뿌림과 거둠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종을 위해 내려놓고자 하였으며(왕상17:15) 이에 주님께서서는 그녀에게 동일한 축복

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B. 믿음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늘어나야 함.

“이로써 내가...아나이다”(왕상17:24). 배고픔의 시련과 통 속의 가루가 그녀를 확신시키지 못한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아들의 죽음이 그녀를 확신시킴)

C. 그리스도와 신자의 모습

우리의 생명을 매일 지탱시켜 주시는 분께서는 다름 아닌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을 지니신 분입니다(요11:25, 눅7:12-15).

* 주의: 악은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이는 마치 선이 의가 아니라 의의 결과인 것과 같습니다.

(제21과 죽기까지 신실함 (35-37절))

이번 과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남녀불문)이 때로는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해 죽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성경적 증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다면 교회사를 꼭 읽어야 하며, 특히 순교자들에 관한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폭스의 순교사〉, 〈그들의 피에 의해〉, 〈순교자의 거울〉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책들은 교회와 세상과의 진정한 갈등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

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필수적입니다.

I. 죽음이라는 현실

- A. 죽음은 죄로 인해 모두에게 해당함(롬5:12, 17)
- B. 죽음은 모두에게 정해져 있는 사실임(히9:27)
- C.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마10:29, 계2:11)

II. 순교의 실재

- A. 지상 최초의 죽음(창4:1-10)
- B. 구약 시대에 지속됨(눅11:51)
- C. 신약 교회 시대 초기
 - (1) 스테반(행7:51-58)
 - (2) 야고보(행12:2)
 - (3) 바울(딤후4:6)
- D.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음(계17:6)
- E. 환난 시대의 처형(계20:4)

III. 종교적 살인의 도구들

- A. 어리석은 짓(막6:25-28)
- B. 종교(행22:4)
- C. 정부(계13:16-18)
- D. 가족(마10:21, 미7:5)

IV. 구출을 받아들이지 않음

A.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

- (1) 거짓 답변으로 구출될 수도 있었음(딤후4:16)
- (2) 초대 교회 성도들은 선택을 해야 했음(행26:10-11)

B. 왜 그러한 구출을 거부했는가?

- (1) 생명보다 진리를 더 사랑했으므로(계12:11)
- (2) 자아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했으므로(요일3:16)

V. 이와 같은 희생에 대한 보상

- A. 천상의 삶을 발견하게 됨(마10:39, 16:25, 눅17:33)
- B. 더 나은 부활을 얻게 됨(히11:35)
- C. 생명의 왕관을 받음(계2:10)
- D. 복음을 확장시킴(고후4:11-12)

* 주의: “풀려나기(구출) 원치 아니하였으며”를 입증하는 많은 사례가 교회사에 나옵니다. 로마의 사제들이 말뚝에 묶인 남녀들 앞에서 십자가를 들고 있고, 그들의 발 아래에는 장작이 쌓여 있고, 횃불을 들고 있는 자들이 화형을 시키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은 수없이 반복되었던 역사의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고 우상 목자를 받아들이면 즉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제22과 약속 (9, 13, 39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성경 말씀은, 믿음이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그 위에 놓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실체가 되지 못하고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롬10:17), 성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엇에다 “확신”을 두어야만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므로(딤후1:2) 하나님의 선언들은 약속들이라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증인들의 믿음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애가 끝나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허락하실 것을 믿는 데는 죽음이라도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히브리서 11장의 문맥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0:35-39의 훈계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이 구절들에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머물러 있어야 하며, 옛 생활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하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로 이러한 구절들에서 찾을 수 있는 진리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I. 약속

- A. 율법 이전 -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음(창12:7)

- B. 율법 아래 - 동일한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음(신 1:8).
- C. 신약 시대 - 교회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상과 섬김과 통치와 땅의 소유에 대한 약속을 받음(눅22:29-30)
- D. 환난 성도 - 야곱의 고난이 끝날 때까지 견디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과 순교자들에게는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통치가 약속됨(계20:4)

II. 신앙 고백

A. 그들은 순례자였음

(1) 순례자는 특정 목적지를 향해 여행하는 자임.

(2) 예(例)

a. 아브라함(창20:13, 23:4)

b. 다윗(시39:12)

B. 그들은 타국인이었음.

(1) 타국인이란 임시로 외국의 영토에 머무는 사람임.

(2) 그리스도인들도 타국인임(벧전2:11).

C. 대조

(1) 방랑자(창 4:14) - 목적지 없이 떠도는 자.

(2) 도망자(창 4:14) - 범망을 피해 도주하는 자

III. 성품(히브리서 11장)

A. 확신하였음(13절)

- B. 기꺼이 받아들임(13절)
- C. 고백함(13절)
- D. 분명히 선언함(13절)
- E. 과거를 생각 안 함(15절)
- F.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바람(16절)

IV. 하나님의 마음

- A.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심
성경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반면 “나는 롯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은 결코 나온 적이 없음
- B. 오늘날에도 동일함.
 - (1)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바른 생활을 해야 함(딤후 2:19)
 - (2) 이는 그분을 또다시 모욕하지 않고자 함임(히6:6)

(제23과 다양한 종류의 믿음 (1절))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 하나라고 하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믿음의 종류와 등급은 물론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맺는 열매들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I. 믿음의 종류

A. 공통된 믿음(딤후1:4)

- (1)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졌음(유3)
- (2) 믿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함(엡2:14, 롬1:12)

B. 인간의 믿음

- (1) 각자에게 분량이 주어짐(롬12:3)
- (2)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 적용됨(고후5:7)

C. 하나님의 믿음(갈2:20)

- (1) 지상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나타남(갈2:16)
- (2) 하늘에서 나타남(딤후1:1)

D. 헛된 믿음(고전15:17)

- (1) 단순한 지적인 동의(약2:14)
- (2) 행동이 없음(마귀도 이렇게 믿음)(약2:19)

E. 전승되는 믿음

- (1) 육신의 가족으로부터(딤후1:5)
- (2) 영적인 가족으로부터(딤후1:2)

II. 믿음의 등급

A. 흔들리는 믿음(약1:6)

B. 적은 믿음(마6:30)

C. 약한 믿음(롬4:19)

D. 담대한 믿음(딤후3:13)

E. 거짓 없는 믿음(딤후1:5)

F. 큰 믿음(마8:10)

Ⅲ. 믿음의 부산물(열매)

A. 은혜에 다가감(롬5:2)

B. 새로운 출생(갈3:26)

C. 화목(롬3:25)

D. 칭의(롬3:25)

E. 성화(행26:18)

F. 의로움(롬4:11-13)

G. 순종(롬16:26)

H. 기쁨(빌1:25)

I. 승리(요일5:4)

J. 응답된 기도(약5:15)

(제24과 죄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죄들이 전혀 언급도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암시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실로 놀라운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이 사람들의 모든 잘못과 실패를 기억해 낼 수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행실들에 대한 기록은 전혀 갖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I. 기도와 약속

- A. 찢림 받은 마음의 간구(시25:7, 79:8)
- B. 긍휼의 하나님의 약속(히8:12, 10:17)

II. 하나님의 거룩하심

- A. 그분은 죄를 쳐다볼 수 없으시다(합1:13).
- B. 그래서 그분은 눈감아 주셨다(행17:30).
- C. 그분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실 수 없었다(출24:7).
- D.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죄들을 가져가셨다(이사야 53장).

III. 죄들을 제거하심을 보여주는 것들

- A. 광야에서의 속죄 염소(레위기 16장)
- B. 대제사장의 겹옷(슥3:1-5)
- C. 하나님의 어린양(요1:29)

IV. 잘못된 제거되고 선한 일은 보상받음

- A. 세 가지 종류의 행위(일)
 - (1) 사악한 행위(골1:21) -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행한 명백한 죄악 된 행위들이다.
 - (2) 죽은 행위(히6:1) - 사악하지는 않지만 성경대로 행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로 행하지 않은 도덕적, 종교적 행위이다.
 - (3) 선한 행위(엡2:10) -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자 한 행위이다.
- B. 죄인의 처지

(1) 죄 가운데 죽음(요8:21, 24)

(2)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사59:2)

C. 성도의 기쁨

(1) 십자가에서 악한 행위들이 제거됨(요일3:5)

(2)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죽은 행위들이 제거됨(고전3:11-13)

(3) 선한 행위는 보상받음(고전3:14-15)

* 주의: 믿는 자의 죄들이 하나님의 등 뒤로 내던져 버려진 사실(사 38:17)과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서서서 그림자를 만들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약1:17)을 아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인가?

*주의: 우리는 본 과에서 구약 성도들의 죄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다룬 교재에서 이들의 죽음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공부하게 됩니다.

(제25과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 (6절))

비록 세상 철학과 그 가르침들이 교회들 안으로 침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절대적인 진리가 남아있습니다. 이 진리는 반드시 선포되어야만 하며 우리 모두는 이 진리가 선택 사항이 아님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12가지 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I. 구원에 필요한 것들

- A.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히 11:6, 출3:14)
- B.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요3:7).
- C. 인간은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 구원받아야 합니다(행4:10-12).
- D. 믿음을 통해서(행 16:30-31)

II.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

- A. 그리스도인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합니다(요 4:24).
- B.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먼저 행해야 합니다(딤후2:6).
- C.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는 과정에서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딤후2:24).
- D. 그리스도인은 세속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롬13:5).
- E. 그리스도인은 신앙 생활에 환난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행14:22).

III. 믿는 자의 미래에 필요한 것들

- A. 믿는 자는 이 육신의 몸을 벗어야 합니다(벧후1:14).
- B. 믿는 자는 변화되어야 합니다(고전15:53).
- C.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합니다(고후5:10).

IV. 영적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부가 사항

- A. 영적 지도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딤후3:2, 7, 8).
- B. 영적 지도자는 가족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딤후3:2, 11).
- C. 영적 지도자는 반대자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딤후1:11).
- D. 영적 지도자는 매우 겸손해야 합니다(요3:30).
- E. 영적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돼야 합니다(잠18:24).
- F. 영적 지도자는 권위하에 있는 자들을 위해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히13:17).

(제26과 믿음의 창시자 그리스도 (12:1-2))

이번 과에서 우리는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모든 행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 1. 아벨의 피의 증언(4절): 예수님의 피의 증언(12:24)
- 2. 에녹의 의로운 행보(5절): 예수님의 의로우신 행보(요8:29)
- 3. 노아가 건축한 방주(7절): 성도를 위한 안전한 방주(벧전3:20-21)
- 4. 아브라함의 임시 거주(9절): 하나님의 지상으로의 여정(빌2:7)
- 5. 아브라함의 후손(12절): 그리스도의 셀 수 없는 씨(사53:10)

6. 아브라함의 아들이 희생물이 됨(17절):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물이 됨(히9:26)
7. 이삭과 야곱이 예언한 앞으로 올 좋은 일들(20, 21절): 주님 안에 내주하셨던 예언의 영(계19:10)
8. 자신의 뼈에 대한 요셉의 명령(22절): 모든 자들의 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고전 15:51-54)
9. 모세의 간증: 예수님의 간증
 - A. 모세의 간증
 - (1) 사람들의 높임을 거부함(24절)
 - (2) 치욕을 택함(26절)
 - (3) 견뎌냄(27절)
 - B. 예수님의 증언
 - (1) 사람들의 높임을 거부하심(요5:41)
 - (2) 치욕을 택하심(시69:9)
 - (3) 견뎌내심(히12:2)
10. 왕국을 정복함(33절): 천국을 세우심(계11:15)
11. 의의 역사(33절): 구세주의 삶(빌3:9)
12. 약속을 얻음(33절): 약속의 확실성(벧후1:4)
13. 구출이 성취됨(34절): 멸망으로부터의 구조(고후1:10, 딤후 3:11-12)
14. 죽은 자를 일으킴(35절): 부활과 생명 되심(요11:25-26)
15. 신실한 자들의 고통당함: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당하심

A. 신실한 자들의 고통당함

- (1) 조롱(36절)
- (2) 채찍질(36절)
- (3) 결박(36절)
- (4) 투옥(36절)
- (5) 구출을 거부함(35절)

B.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당하심

- (1) 조롱(막15:31)
- (2) 채찍질(요19:1)
- (3) 결박(요18:12)
- (4) 투옥(사53:8)
- (5) 구출을 거부하심(마26:53)

16. 이들은 모두 죽었음(13절): 그분은 항상 살아 계심(히7:25)



지은이

James W. Knox

제임스 닉스 형제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닉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닉스 형제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의 달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 자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 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지금까지 백 30만 개의 자료들을 보급해 왔습니다.

닉스 형제는 테이프 사역과 문서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고 지금도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http://www.jameswknox.org>